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3기 제2강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숨겨진 심리학-갈등, 문제 해결 기법'

“살인 등 극단적 분노표출 원인은 소통 부재 적극적 듣기와 대화 노력으로 존중감 줘야”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상대방과 자신의 심리 제대로 알면 사회 병폐 예방

TV·휴대폰 끄고 고개 끄덕이는 등 경청 자세 필요

“세월호는 선원의 자부심(Seamanship) 결여로 인한 예견된 참사였다.”
형사, 경찰대 교수를 거쳐 국내 최초의 범죄심리분석가로 범죄의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승객을 먼저 탈출시키고 나서 자신을 구하려는 선원의 목표의식이 없었던 것을 꼽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현재도 비슷한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를 맡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숨겨진 심리학-갈등, 문제 해결 및 설득과 협상기법’이라는 주제로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대형 안전사고를 사례로 들어 리더·조직원으로서 소통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범죄만 붙들고 30년 씨름하며 범죄자를 만나온 표 소장은 “상대방과 자신 스

로 심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회 병폐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직장·가족에서 소통, 의사 전달, 설득,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이 직무 상 기본적인 의무를 제버리지 않았더라면 300명 넘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표 소장의 설명이다. 과적이 일상적으로 묵인되고 비정규직 고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성취감과 동기를 얻기 힘들면서 책임과 사명감이 바뀐다는 것이다.

표 소장은 세월호 선원의 경우 사회학자 머튼의 이론 ‘사회와 조직에 적용하는 5가지 유형’인 동조형·혁신형·의례형·도피형·반항형 가운데 목표의식 없이 주어진 수단에 순응하는 의례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동조형은 강한 성취 동기와 욕구를

지녀 사회와 조직에 부여하는 목표와 수단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컫는다. 표 소장은 좋은 환경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골프장 카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제주시감장,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동의 40대 증산층 가장 등 한국형 엘리트가 붕괴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대다수가 커닝을 하다 걸리는 부끄러운 모습이나 한국 유학생 40%가 중도탈락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주한 미 대사를 기습 공격한 김기중 씨의 경우 주어진 목표와 수단 모두를 거부한 반항형에 비유했다. 표 소장은 “김씨가 폭력을 택하기까지의 정서는 쾌감보다는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쪽과 소통하지 못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선택하는 극단적 수단에는 폭력, 방화, 자살 등이 있다. 문제는 폭발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주변 사회가 후유증을 겪는다는 것이다. 표 소장은 “분노를

승화시켜 문제를 해결, 혁신, 투쟁하려는 노력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통을 위한 첫 관문은 가족, 동료 등에게 내 얘기를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적극적 듣기를 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표 소장은 “범죄자로부터 자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초임 형사는 자신의 말만 하며 쏘아붙이지만 유능한 형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을 열도록 먼저 듣는 요령이 있다”고 말한 뒤 ‘적극적 듣기 5원칙’을 제시했다.

단계별로 처음에는 마주하며 진지하게 경청하는 몸동작을 취하고 ▲TV와 스마트폰을 끄는 등 대화 방해요인 제거하기 ▲고개를 끄덕이거나 추임새를 넣는 반응 보이기 ▲상대방의 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질문하기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마무리한다. 표 소장은 “범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당장 집이나 직장에서 대화하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럭 화를 내면 그 순간 소통의 문은 닫히게 된다”며 적극적인 듣기와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포세대’ (연애·결혼·출산·인관관계·주택구입 포기)

‘금사빠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

국립국어원, 신조어 139개 발표

‘모루밍족’ ‘오포 세대’ ‘뇌섹남’ ‘심쿵’... 하루가 멀다고 대중매체와 인터넷 공간에는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취향, 감정 등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쏟아진다.

한국어의 이같은 양상을 관찰하고자 정기적으로 새 낱말(신어)의 출현을 살피는 국립국어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간지 등 139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에 등장한 신어 334개를 조사해 25일 2014년 신어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어에는 특정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어휘가 27%(92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서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람을 일컫는 ‘모루밍족’에는 실속을 챙기는 소비 경향이 반영됐다. 출퇴근을 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쇼핑하는 ‘출퇴근 쇼핑족’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관련이 있다.

생활과 탓에 연애·결혼·출산·인관

계·주택 구입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오포 세대’, 자녀 교육에 관한 사회문제에 분노하고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 ‘앵그리 맘’ 등은 오늘날 청년층과 여성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반영했다.

‘금사빠녀’(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 ‘꼬돌남’(꼬시고 싶은 돌아온 싱글 남자),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무뎠고 지적 매력 있는 남성)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남녀 특징도 어휘에서 드러났다.

주제별로는 사회·경제(24%, 80개), 통신(14%, 47개) 관련 어휘가 많았다.

특히 ‘임금 절벽’(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상), ‘주거 절벽’(급격한 주거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상) 등 ‘절벽’계 어휘가 여럿 등장했다. 한국사회 현실을 ‘벼랑 끝 상황’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창업 절벽’ 등으로 설명한 책 ‘절벽사회’에서 유래했다. 2014년 신어 자료집은 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MB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수사

검찰, 문체부 등 정책결정 외압 의혹·금품거래 조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관련 부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A씨의 비리 의혹을 담은 각종 정보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범법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외압을 행사해 정부 사업 추진 및 정책 사안 결정 과정에서 특정한 단체에 편의가 제공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거래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수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시민단체·전국 대학생 U대회 국토대장정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대학생들이 오는 7월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한반도 평화 대회 개최를 염원하는 자전거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광주시남북교류협회의회는 25일 “‘광주하계U대회를 한반도 평화의 대회로!’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자전거국토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남북교류협회의회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YMCA, 광주평화재단,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재능기부센터가 주

최하고 한반도U자전거국토대장정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4박1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자전거국토대장정은 임진각을 출발해 평택→전주→광주→제주→부산→대구→삼척→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마무리된다.

광주시남북교류협회의회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자전거국토대장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국토대장정 공동행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2015년 한반도의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특강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636 결과 **민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보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홍 김사연' 양이 전국으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클리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유망지역 투자전략 세미나**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3. 26(목)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 상반기 부동산 소액투자 전략
-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 개발 유형별 토지 투자가격 분석
- 광주 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및 확실한 투자전략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어디인가?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합법 게재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십시오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국 문외하사건 자재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